

##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6. 콜롬비아 ICT 환경 분석

■ 유 태 경\* · 송 영 민\*\*

### 1. 개 요

콜롬비아공화국(República de Colombia, 이하 ‘콜롬비아’)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5배 규모의 국토(1,039천km<sup>2</sup>)를 보유한 국가이다.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는 카리브해와 면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파나마, 동쪽으로 베네수엘라·브라질, 남쪽으로는 에콰도르·페루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 4916만 명의 중남미의 대표적 다인종·다문화 사회이다. 인디오와 유럽계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mestizo)가 58%, 아프리카계 흑인과 유럽계 백인의 혼혈인 몰라토(mulato)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계 백인은 비율이 20%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여기서 소외된 그룹들이 지난 40년간 농촌과 정글지역을 기반으로 무장 투쟁을 전개해왔다.

콜롬비아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제 국가를 수립한 이후, 대통령 중심제 및 양원제의 정치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2018년 8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 깔데론(Juan Manuel Santos Calderón, 이하 ‘산토스’) 前 대통령의 뒤를 이어 친미 우파 성향의 이반 두케(Ivan Duque, 이하 ‘두케’)가 제33대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인턴연구원, (043)531-4399, taeuyou@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204, youngms@kisdi.re.kr

임했다. 두케 대통령은 민주중도당(Centro Democrático) 후보로 출마, 우파와 중도 세력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콜롬비아 역사상 최연소(42세)로 당선되었다. 두케 대통령은 2000년대 반군 진압을 중심으로 하는 치안 유지 정책과 친미·친시장 정책을 강조했던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 Velez) 前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그와 유사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산토스 정권은 2016년 정부와 콜롬비아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보수우파 성향인 두케는 이러한 평화협정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중남미 지역 내 좌파 성향의 정부가 증가하고 미국에 대응한 역내 결집 움직임 등이 포착되면서 우파 성향을 유지해온 콜롬비아 정부는 역내 고립의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다. 2010년 8월 출범한 산토스 정부는 인접국들과의 관계 악화<sup>1)</sup>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역내국가와의 화해·협력 및 EU, APEC 등으로 관계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OECD 가입 절차 공식 개시, APEC 가입 추진 등 선진권 경제 진입을 위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통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콜롬비아는 상위중소득국(Upper Middel Income Country, 이하 'UMIC')에 해당된다. 콜롬비아의 국가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50년간 지속된 정부와 반군 간 내전으로, 특히 분쟁지역에서 폭력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생활수준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에서도 여타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경제는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적이 없으며, 2018년 5월에는 남미에서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sup>2)</sup>

1) 2008년 3월, 콜롬비아 군의 에콰도르 영내 진입을 통한 FARC 2인자 Raúl Reyes 사살사건 이래 에콰도르와 2009년 10월 콜롬비아 영토 내 미군기지 제공으로 베네수엘라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한 바 있다. 산토스 정부 출범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및 에콰도르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현재 완전히 정상화된 상태이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오랜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5천여 명의 병력을 한국에 파견한 바 있다. 한-콜롬비아 정식 외교관계는 1962년 시작되었으며, 2013년 양국 간 FTA 협정이 정식 서명되었다. 또한 콜롬비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2015년까지 약 85백만 불이 유·무상원조로 지원된 바 있을 정도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BMI가 2018년 9월에 발표한 『Colombia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s 10-year forecasts to 2027』 보고서 내용 중 ICT 내용을 발췌하여 ICT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對콜롬비아 ICT ODA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콜롬비아와의 국제협력에 있어 맞춤형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콜롬비아 ICT 현황 분석

### (1) ICT 발전 현황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보면, 콜롬비아는 전체 176개국 중 84위(통합지수 5.36)를 기록하며 전년도인 2016년과 동일한 순위로 전 세계에서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IDI 세부 지수로는 접근성(Access) 지수 85위(5.88), 이용도(Use) 지수 85위(4.11), 활용능력(Skills) 지수 69위(6.81)를 기록하였다. 2016년의 IDI 세부 지수가 접근성 지수 86위(5.74), 이용도 지수 87위(3.85), 활용능력 지수 75위(6.44)였음을 비교해볼 때, 활용능력 지수를 제외하고는 세부 지수에서 별 다른 발전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2) 2018년 5월 30일 OECD가입 서명식을 가졌으며, 가입 절차 마무리를 위해서 국내 의회의 인준을 준비 중에 있다.

지역적으로, 2017년 미주 지역 IDI 통합지수 평균(5.21)은 전 세계 평균(5.11)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접근성 지수는 전 세계 평균(5.59)보다 0.08 높은 5.64이며, 활용능력 지수는 전 세계 평균(5.85)보다 0.59 낮은 5.21을 기록하였다. 미주 지역 중 선진국에 해당하는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지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콜롬비아는 해당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중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 <표 1>에서는 미주 국가 35개 지역 중 IDI 상위 2개국과 하위 2개국 및 남미 중심으로 IDI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1> 미주 지역 IDI 현황 비교(2017년)

구분	통합	접근성 (Access)	이용도 (Use)	활용능력 (Skills)
미국	8.18 (16위)	8.27 (17위)	7.67 (20위)	9.05 (2위)
캐나다	7.77 (29위)	7.93 (30위)	7.27 (27위)	8.47 (20위)
코스타리카	6.44 (60위)	6.40 (74위)	6.18 (47위)	7.05 (63위)
콜롬비아	5.36 (84위)	5.88 (85위)	4.11 (85위)	6.81 (69위)
베네수엘라	5.17 (86위)	5.15 (97위)	3.94 (91위)	7.64 (47위)
파나마	4.91 (94위)	5.95 (84위)	3.32 (112위)	6.01 (92위)
페루	4.85 (96위)	4.90 (102위)	3.96 (90위)	6.54 (75위)
에콰도르	4.84 (97위)	4.93 (100위)	3.92 (94위)	6.53 (76위)
자메이카	4.84 (98위)	5.29 (93위)	3.94 (92위)	5.78 (100위)

구분	통합	접근성 (Access)	이용도 (Use)	활용능력 (Skills)
도미니카공화국	4.51 (106위)	4.30 (122위)	4.04 (88위)	5.89 (96위)
볼리비아	4.31 (112위)	4.42 (117위)	3.38 (107위)	5.96 (94위)
파라과이	4.18 (113위)	4.41 (118위)	3.29 (113위)	5.52 (110위)
엘살바도르	3.82 (119위)	4.75 (109위)	2.25 (124위)	5.11 (118위)
과테말라	3.35 (125위)	4.52 (115위)	1.78 (135위)	4.13 (130위)
온두라스	3.28 (129위)	4.08 (126위)	1.89 (133위)	4.44 (124위)
니카라과	3.27 (130위)	4.19 (123위)	1.73 (140위)	4.51 (122위)
쿠바	2.91 (137위)	2.40 (166위)	1.30 (151위)	7.16 (62위)
아이티	1.72 (168위)	2.37 (167위)	0.75 (165위)	2.35 (163위)
미주 국가 평균(35개국)	5.21	5.64	4.21	6.34
전 세계 평균(175개국)	5.11	5.59	4.26	5.85
한국*	8.85 (2위)	8.85 (7위)	8.71 (4위)	9.15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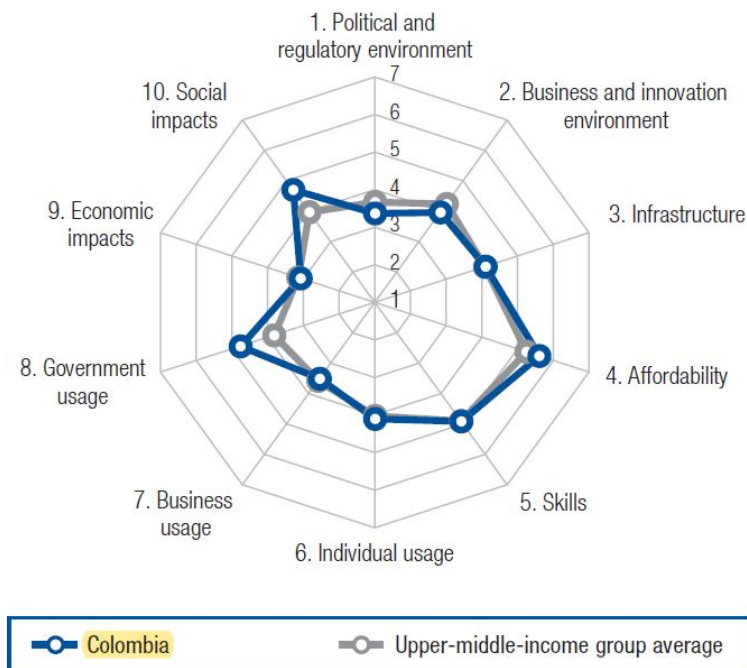
자료: ITU(2017a), 재구성

\*미주 지역 IDI 지수와 비교를 위해 한국 IDI 지수 삽입

한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한 2016 네트워크 준비 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통합 지수를 보면, 콜롬비아는 전체 139개국 중 68위(4.1)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환경(Environment) 지수에서 102위(3.7), 준비(Readiness) 지수에서 66위(4.9), 이용(Usage) 지수에서 54위(4.1), 영향

(Impact) 지수에서 52위(3.9)를 기록하였다. 아래 [그림 1]은 콜롬비아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소득국의 NRI 지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 중소득국 평균에 비해 정부 이용도(Government Usage) 및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s) 지수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콜롬비아와 중소득국 평균 NRI 세부 지수 비교



자료: WEF(2016)

## (2) ICT 시장 현황

콜롬비아는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있어 타 국가들의 발전에 비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인구 대비 ICT 채택 비율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디지털경제를 콜롬비아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2017년 11월에 ‘콜롬비아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로드맵(Regulatory Roadmap to Develop Colombia’s Digital Economy)’를 발표하는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콜롬비아 통신 정책 및 ICT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부(Ministerio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이하 MINTIC) 또한 ‘Plan Viva Digital’을 이니셔티브로 내걸며, 인프라, 서비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등 4가지 핵심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과 유사하게, 콜롬비아 통신 시장 내에서도 무선 브로드밴드에 의한 유선브로드밴드 대체 현상이 포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콜롬비아 내 통신사업자들은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가입률 또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ITU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ICT 주요 지표는 유선통신 가입자 수가 2015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인다. 콜롬비아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로 Telefonía Colombia, Claro Colombia, Colombia Movil(TigoUne) 등이 존재한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5G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당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지만 표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2〉 콜롬비아 ICT 시장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선통신	가입자 수(천 명)	7,066	7,141	7,180	7,109	7,115
	100명당 가입자 수(%)	15.07	15.08	15.03	14.74	14.63
이동통신	가입자 수(천 명)	49,066	50,295	55,330	57,327	58,684
	100명당 가입자 수(%)	104.66	106.24	115.77	118.87	120.62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3,938	4,537	5,028	5,525	5,912
	100명당 가입자 수(%)	8.40	9.58	10.52	11.46	12.15
인터넷	사용자 수(%)	51.70	52.57	55.90	58.14	62.26

자료: ITU(2017), 연구진 재정리

콜롬비아의 ICT 시장에 대한 BMI의 SWOT 분석 결과 및 콜롬비아 통신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콜롬비아 ICT 시장 SWOT 분석

강 점(S)	약 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ICT 정책(2014~2018년 사이 69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함)</li> <li>• 남미 최초로 LTE 출시한 국가 중 하나임 (2008년 3G, 2013년 4G 출시)</li> <li>•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새로운 사업자를 위한 4G 주파수 배당이 이를 강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시장의 성장은 선불제 요금에 주를 이룸</li> <li>• 이미 시장 내 이동통신 가입률이 높아 2027년까지의 유기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li> <li>• 시장 경쟁과 성장에 있어 Claro의 독점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li> </ul>
기 회(O)	위 험(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G와 4G를 통한 이익 창출</li> <li>•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잠재력이 크고, TigoUNE가 주도할 가능성이 큼</li> <li>• 4G의 성장이 강력하며, 후불제 모바일 데이터 가입률이 점차 증가함</li> <li>• 브로드밴드와 유료TV 서비스 등의 멀티플레이 서비스가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li> <li>• 정부의 Movistar 지분 매각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바람직한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높은 이동통신 가입률은 차후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가입자는 주로 저소득층 및 외곽지역 거주자임</li> <li>•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더 빠른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사업자들의 인프라 투자가 감소함</li> <li>• 시장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모바일 SIM카드가 다수 있음</li> </ul>

자료 : BMI(2018), 재구성



〈표 4〉 콜롬비아 통신 사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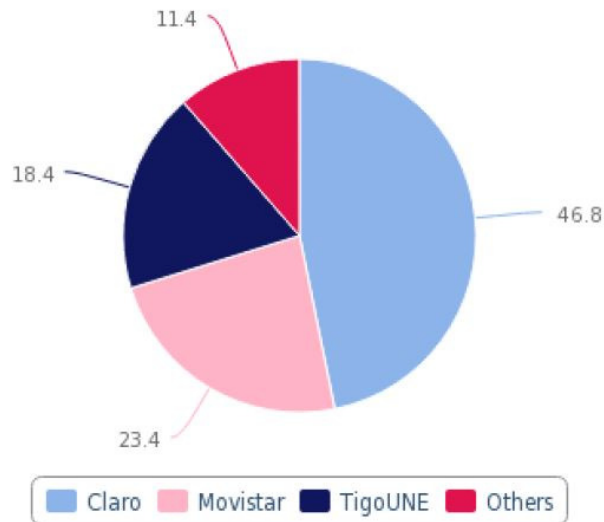
사업자명	통신 서비스	지배(소유) 구조
Empresa de Telecomunicaciones de Bogotá(E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Fixed-line)</li> <li>• 인터넷</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롬비아 정부(86.5%)</li> <li>• other public bodies(1.8%)</li> <li>• 비상장 주식(11.6%)</li> </ul>
Orbi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Fixed-line)</li> <li>• 인터넷</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E EPM(100%)</li> </ul>
Movistar (incl. Telefónica Tele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Fixed-line)</li> <li>• 인터넷</li> <li>• 모바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efónica(67.5%)</li> <li>• 정부(32.5%)</li> </ul>
Cla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Fixed-line)</li> <li>• 인터넷</li> <li>• 모바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erica Móvil(99.4%)</li> </ul>
TigoU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Fixed-line)</li> <li>• 인터넷</li> <li>• 모바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licom International Cellular(50%-1 share)</li> <li>• EPM(50%+1 share)</li> </ul>

자료: BMI(2018), 재구성

## 1) 콜롬비아 모바일(이동통신) 시장 현황

콜롬비아 모바일 시장은 가상 이동통신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MVNOs)의 진입과 함께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양상이다. 지금까지 Claro社, Movistar社, TigoUNE社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Uff! Móvil社, ETB社, Móvil Exito社, Avantel社, Virgin Mobile社 등과 같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MVNOs는 2010년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2015년 기준 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콜롬비아 모바일(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2018년 1분기 기준)



출처: BMI(2018)

인터넷 접속을 위한 모바일 이용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2016년 기준 70%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바일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들 또한 수익 증가를 위해 비음성 서비스에 집중함에 따라, 4G LTE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Movistar社와 TigoUNE社의 LTE 네트워크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콜롬비아 전체 인구의 70%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18년 2분기에 Claro社, TigoUNE社, Movistar社 3개 사업자가 모두 LTE어드밴스드(LTE-Advanced; LTE-A) 서비스를 출시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8년 말까지 100% 커버리지(Coverage)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후 진행될 예정인 700MHz와 1900MHz 주파수 옥션이 이러한 4G 서비스의 외곽 지역으로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Claro社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주요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타 및 메델린 지방정부는 2대 유선 사업자인 ETB社, UNE-EPM社의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모바일 분야 2위 및 3위 사업자인 Telefonica社 및 TigoUNE社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Colombia Telecomunicaciones社의 지분을 30%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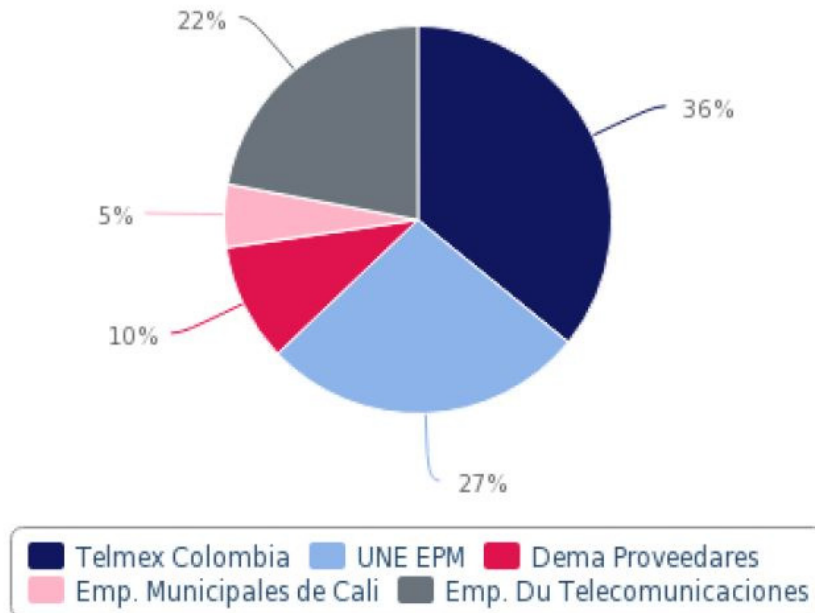
이러한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관계는 콜롬비아 내 경쟁중립성에 대한 공식 정책이 없고, 공공기관들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분리회계 의무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콜롬비아 모바일 성장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2) 콜롬비아 유선통신 · 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전 세계적으로 유선통신이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빠르게 기반을 잃어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유선통신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콜롬비아 유선통신 서비스에 모바일 서비스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콜롬비아의 유선통신 시장은 많은 수의 지방 사업자로 인해 파편화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Telmex Combia社(36%), UNE EPM社(27%), Dema Proveedares社 (10%)가 차례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주로 데이터 서비스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외곽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Plan Viva Digital'에 부합하는 면이 있어 콜롬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림 3] 콜롬비아 유선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2017년 4분기 기준)



출처: BMI(2018)

한편,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MINTIC)는 네 개로 분산되어 있던 규제기관(정보통신기술부(MINTIC), 통신규제위원회(CRC), 국가주파수관리청(ANE), 국가방송규제위원회(ANTV))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통합된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는 정부 규제를 통합하고 라이선싱 절차를 단일화하는 한편 콜롬비아 통신 시장에 더 큰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장 내 사업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매우 파편화되어 있는 유선시장에 대한 단일화 노력과 이에 따른 경쟁력 있는 전국 사업자의 증가가 그것이다.

콜롬비아 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주로 케이블과 DSL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 DSL과 광섬유 사이의 점유율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DSL의

경우 작년 대비 14.9%의 가입을 감소를 보였으며, 이에 반해 광섬유는 작년 대비 270%의 가입률 증가를 보이는 등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BMI는 유선시장의 파편화 현상과 낮은 소비자 구매력으로 인해 쉽지 않겠지만 내년에 DSL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3. 한국의 對콜롬비아 ODA 현황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무상원조 규모는 2008년 처음으로 100만 불을 넘어섰으며, 2009년에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Bogota)에 KOICA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어왔다. 여기에서는 한-콜롬비아 ODA의 일반 현황과 ICT ODA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對콜롬비아 ODA 일반 현황

콜롬비아는 한국전 참전과 같이 한국과 오랜 교류 관계를 유지해왔고, ODA 분야에서도 한국의 1·2차 중점협력대상국으로써 꾸준한 협력을 이어왔다. 한국의 對콜롬비아 1차 국가협력전략은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0-2014)의 수행에 긴밀히 협력하고 성장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1차 CPS의 중점협력분야는 1) 농촌 지역개발, 2)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3) 공공행정 세 가지로, 전체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하며 과학기술 및 범분야적 요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의 對콜롬비아 2차 국가협력전략은 콜롬비아의 2차 국가개발계획(2014-2018)의 3대 축(평등, 평화, 교육)과 6대 전략(인프라 개발, 사회적 이동성 확대, 농촌 개발, 사회 안정성 제고, 녹색 성장, 좋은 정부) 이행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새롭게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1) 지역개발, 2) 교통, 3) 산업, 4) 평화를 중점협력분야

로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對콜롬비아 ODA 지원은 2000년 이전 약 183만불 수준에서 2013년에는 2,157만불 규모로 확대되었다 점차 감소하여 2015년 1,511만불 규모로 진행되었다. 대체로 무상원조의 형태였으며, 유형별로는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으나 그 외에도 긴급 구호에서부터 개발컨설팅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ODA 사업이 추진되었다.

## (2) 對콜롬비아 ICT ODA 사례

한국의 對콜롬비아 ICT ODA 지원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콜롬비아 전자통신연구소 지원사업(28.2만불, 1991-1993)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무상원조로 형태로 콜롬비아 정보통신 실행계획 수립지원사업(95.4만불, 2007-2009), 유상원조의 형태로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3,000만불, 2013-2015) 등이 추진되었다.

무상원조 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8 콜롬비아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자문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한국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콜롬비아의 정보통신기술부(MINTIC)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ICT 정책 컨설팅 사업으로, 한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경험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성공사례 전수와 콜롬비아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 및 브로드밴드 발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최종 워크숍을 포함한 세 차례의 현지자문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자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피드백을 반영한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콜롬비아 정부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ICT법 개정예 동 자문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디지털경제 및 브로드밴드 발전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원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3,000만불, 2013-2015)’을 꼽을 수 있다. 동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콜롬비아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Nacional, MEN)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국가혁신센터 및 지역혁신센터 구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공교육 질 향상 및 지역·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LG CNS社가 동 사업을 수주하여 수도인 보고타 지역을 포함하여 콜롬비아 전역의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혁신센터 1개 및 지역혁신센터 4개를 설립하였으며, 교사 연수 및 교과목 콘텐츠 개발 사업 또한 함께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對콜롬비아 ICT ODA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한-콜롬비아 간의 굳건한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한국 기업의 콜롬비아 현지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콜롬비아의 경우 전통적인 ICT ODA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정부는 2차 중점협력분야의 하나인 ‘평화’ 분야에 있어 ICT 기술을 활용한 분쟁지역의 기관역량 강화와 공공행정의 효율성·투명성 및 시민참여 확대에 대해 강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한국의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 정책 및 경험이 ICT ODA의 일환으로 전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ICT 선진 기술과 성공적인 ICT 정책 수립 경험을 보유한 한국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ICT ODA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결 어

2018년 제 73차 유엔총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남미 3개국(콜롬비아, 쿠바,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콜롬비아 뚜르히요(Carlos Trujillo)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으로 콜롬비아 내 인프라 건설 및 전자정부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콜롬비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ICT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콜롬비아의 ICT 환경에 대한 분석 및 한국과의 ODA 협력 현황을 통해 관련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콜롬비아는 미주지역 중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ICT발전지수(IDI)가 상위권을 기록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곡선을 그린다. 또한, ICT시장 경쟁경쟁에 대한 사업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콜롬비아 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콜롬비아의 ICT시장은 역내 선진화된 발전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BMI (2018). *Colombia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s 10-year forecasts to 2027*. London: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
- CRC (2018). *Regulatory Roadmap to Develop Colombia's Digital Economy*. Comisión de Regulación de Comunicaciones.
- ITU (2017a).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7: Volume 1*. Genev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 (2017b).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7: Volume 2*. Genev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WEF (2016).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6: Innovating in the Digital Economy*.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강주홍 (2011), “ICT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방안”, 『국제개발협력』, 2011(3), pp. 167~193.
- 김성웅·전영균 (2014), “콜롬비아 통신 규제정책 검토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6(23) 통권 59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 (2016),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
- 심수민·유성훈 (2017),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 전략. 우즈베



- 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29(8) 통권 64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외교부 중남미국 중미카리브과 (2015), 『콜롬비아 개황』, 외교부.
- 이세라-유성훈 (2017),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2. 미얀마 ICT 환경 분석”, 《정보통신방송정책》, 29(8) 통권 64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추종연 (2014), “반세기 한-콜롬비아 관계의 변화와 발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로,” 『국제지역연구』, 18(2), pp. 5~2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8),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 《연합뉴스》 (2018. 6. 18), “콜롬비아, 위기의 평화협정…두케 당선에 고개드는 ‘내전악몽’ ”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8025900087> (검색일: 2018. 8. 19).
- 《파이낸셜뉴스》 (2018. 8. 10), “콜롬비아 최연소 대통령 두케, 우리베의 복사판?”  
<http://www.fnnews.com/news/201808100055354331> (검색일: 2018. 8. 19).
- BN Americas* (2018. 8. 12)/ “Colombia wants to rely on a digital economy”  
<https://subscriber.bnamericas.com/en/news/colombia-wants-to-rely-on-a-digital-economy>,  
(검색일: 2018. 9. 1).
- CRC 홈페이지, <https://www.crcm.gov.co/es/pagina/hoja-ruta-economia-digital>  
(검색일 2018. 8. 20).